



'드라마 스테이지 2021'



'드라마 페스타'



'드라마 스페셜 2020'

드라마 자양분 되는 단막극, 올 테마는 기술·가족·사랑

tvN '드라마 스테이지'
JTBC '드라마 페스타'
KBS '드라마 스페셜...'

해피엔딩보다 우울한 결말 많아
각박해져 가는 시대상 반영

세계로 뻗어나가는 K드라마의 자양분이 되는 단막극들이 올해도 안방극장에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지난해 말 10주년을 맞은 KBS 2TV '드라마 스페셜'에 이어 최근 방송 중인 tvN '드라마 스테이지'와 JTBC '드라마 페스타'를 통해 신인작가들이 기술, 가족, 사랑을 키워드로 내세운 작품을 선보이면서 짧은 시간에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tvN의 '드라마 스테이지 2021'은 '우리에게 곧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주제인 만큼 10개의 작품에서 단연 기술이라는 테마가 돋보였다.

새로운 형벌 제도로 도입된 가상범죄 프로그램으로 일주일마다 두 번씩 규칙적으로 살해당하는 범죄자의 이야기를 그린 '더 페어', 유전자 검사로 사랑의 유통기한을 알 수 있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러브 스포일러', 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AI) 상담원과 경쟁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투쟁을 그린 '박성실 씨의

사차 산업혁명'이 대표적이다.

불법 촬영과 디지털 장의사를 소재로 한 'EP. 안녕 도로시', 가짜 금수저의 삶을 영위하던 인플루언서의 처절한 거짓말을 그린 '관중', 고장 난 MRI 기계에 들어갔다가 20대 청년이 되어 나온 57년생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담은 '민트 컨디션'도 그 연장선에 있다.

지난 15일 첫선을 보인 JTBC '드라마 페스타'는 가족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작품을 내세웠다.

결혼식 당일에 사라진 신랑을 찾기 위해 떠난 엄마와 딸의 여정을 그린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가 방송됐고 잃어버린 아이를 11년 만에 되찾은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아이를 찾습니다'가 다음 주 시청자들을 만난다.

tvN에서도 실종된 지 5년 만에 돌아온 자신에게 '다시 죽어달라'고 요청하는 가족들을 만난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덕구이즈백', 사람보다 느린 좀비들이 생겨난 세상에서 좀비보다 느린 임산부들의 험난한 출산기 '산부인과로 가는 길' 등을 통해 가족이라는 테마를 다룬다.

지난해 연말 방송됐던 KBS 2TV '드라마 스페셜 2020'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편의 친구,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게 된 두 남녀의 위험한 로맨스를 그린 '크레바스', 고백조차 하지 못했던 첫사랑을 7년 만에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백하지 않는 이유', 전 남편 두 명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된 여자의 직장 생활을 담은 '연애의 흔적'이 대표적이다.

공회정 대중문화평론가는 "최근 몇 년 사이 단막극에서 해피엔딩보다는 우울한 결말이 많이 보인다"며 "점차 각박해져 가는 시대상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박성실 씨의 사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은 기계에 패배하고, '관중'도 끝까지 거짓된 태도를 일관하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 평론가는 "이러한 단막극들이 시리즈 극처럼 흥행할 가능성은 작지만, 단막극은 드라마 분야에서 큰 나무를 길러낼 수 있는 씨앗 같은 역할을 한다"며 "배우, 작가, 연출 모두에서 신인을 육성해내고 드라마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BTS 단독 토크쇼 '렛츠 BTS' 29일 KBS 2TV 방송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음악계 최고 권위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독 토크쇼 '렛츠 BTS' (Let's BTS)가 오는 29일 100분간 방송된다.

KBS 2TV는 "스페셜 단독 토크쇼 '렛츠 BTS'가 오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100분 동안 방송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데뷔 후 지금까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멤버들의 유쾌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만나

볼 수 있다. 사전에 이뤄진 대국민 참여를 통한 무대도 방송된다.

제작진은 "무대에서는 카리스마를 뽐내던 그들이 토크쇼에서는 다소 긴장한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한 분위기로 이어져 그들의 유쾌함과 솔직함이 돋보이는 토크를 선사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렛츠 BTS'는 신동엽의 단독 진행으로 이뤄지며, 개그우먼 장도연이 특별 MC로 함께한다.

/연합뉴스

18년 여정 마치는 EBS '보니하니'

25·26일 특집 생방송

1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 EBS 1TV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이하 '보니하니')가 오는 25일과 26일 특집 생방송을 방영한다.

EBS는 "'보니하니'가 26일 오후 6시 43분 13회 생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한다"며 "25일과 26일 양일간 특집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에는 '보니하니'의 요일별 코너들을 하나로 묶어 보여주는 '비밀의 방', 시청자들의 편지를 MC들이 직접 읽어주는 '보니하니 행운의 편지'가 방송된다.

마지막 방송인 26일에는 '잊지마 보니하니'라는 이름 아래 특급 게스트들이 등장해 '돌려 돌려 돌리판'을 돌린다. 또 보니 이원준과 하니 김재연의 합동 무대도 준비되었다.

한편, '보니하니'의 후속 프로그램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는 오는 29일 첫 방송을 한다.

/연합뉴스



신개념 국악프로그램 '이리온나라 조선클럽'

KBS 광주방송총국 봄맞이 프로그램 개편

KBS 광주방송총국은 본격 생활 밀착형 시사프로그램 '시사직배송'과 신개념 국악프로그램 '이리온나라 조선클럽' 등을 새롭게 시작했다.

먼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방송되는 시사프로그램 '시사직배송'은 지역민들에게 생활 속 시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직접 배송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광주·전남뿐 아니라 생활 속 중요 이슈를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양종아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김석순 전 YMCA 사무총장과 안순례 변호사가 출연한다. 40분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에 밀

착된 지역 현안들을 짚어보는 'PD추천배송',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쏠린 현장을 찾아가는 '핫이슈 바로 배송', 지역사회를 바꾸는 긍정적인 시도와 훈훈한 미담 전하는 '착한 배송' 등으로 구성됐다.

신개념 국악프로그램 '이리온나라 조선클럽'은 지난 10일 첫 선을 보였으며, 임정섭 KBS 광주방송총국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폐널로 방송인 김세아, 성악가 방대진 교수, 뮤지컬 배우 이해원, 진도군청 오귀석 홍보팀장이 출연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듯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해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탁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